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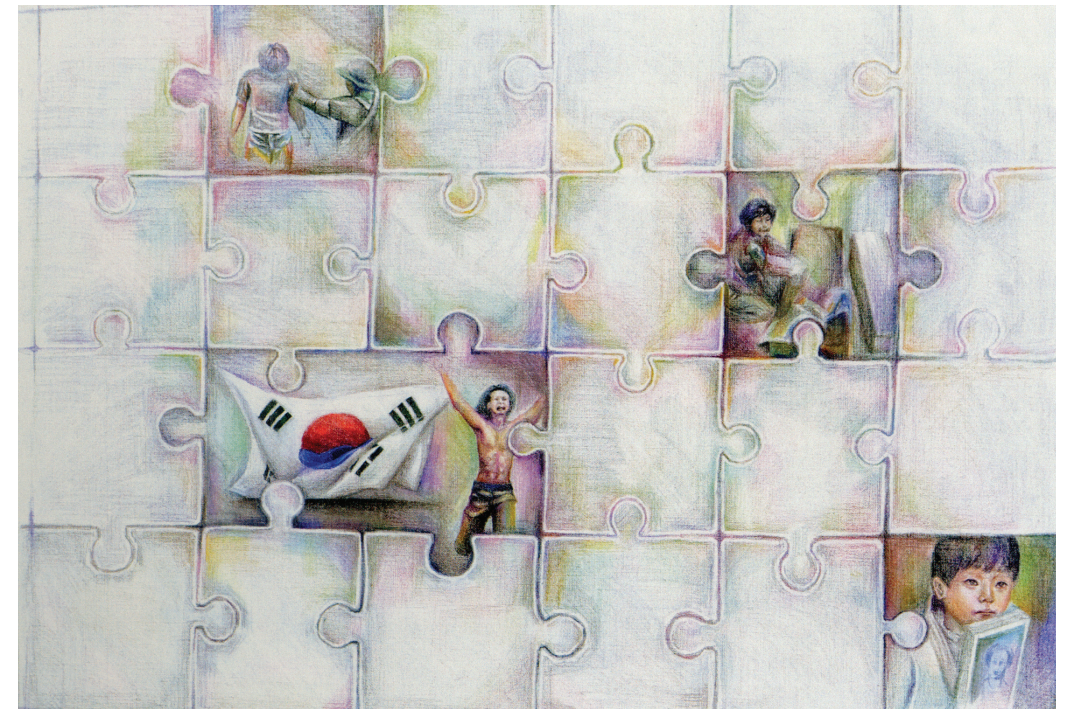
전인삼



박아림



선영숙



김예술 작 '오월의 조각'

# '우리 춤과 소리' 계보를 잇다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그동안 발표 무대가 넘쳐나지 않았던 전통예술인들의 활동무대를 넓혀왔다. 또한 신예와 중견, 원로 예술인의 꾸준한 맥을 잇는 전통무대의 모델로 자리잡아왔다.

지난 1990년 '한국의 명인명무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시작했던 무대가 벌써 109회를 맞았다. 당시만 해도 전통예술 공연무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34년째 공연 무대를 지속해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다.

제109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

이번 무대는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 창립 34주년 기념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우리 전통의 원형보존과 전승이라는 전통가치를 표방하며 우리춤의 뿌리를 지켜오는 데 진력했다.

박동국 대표는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그동안 신예와 중견, 원로가 함께 우리 춤과 소리의 고풍을 잇고 맛으로 전통예술의 계보를 이어왔다"며 "춤과 소리의 절대적 정진성을 추구하며 하나의 전통예술무대의 브랜드로 입지를 다져왔다"고 밝혔다.

## '한국의 명인명무전'

2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  
전인삼 전남대 교수 등 무대 올라  
영상·춤, 소리로 변주 이색 콜라보

또한 "이번 무대는 창립 34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며 "이색적인 콜라보 형태의 영상, 춤이 소리로 변주되는 입체적인 춤 사위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의미를 말했다.

이번 공연 무대는 박 대표가 예술총감독 겸 해설을 정지희 기획이사가 기획을 맡았다.

공연은 '태평무 한삼과 판소리가 하늘과 내통하다'는 전체적인 컨셉에 따라 펼쳐진다. 강선영류 태평무 이수자 한민정,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인간문화재 선영숙, '춘향가' 중 '동헌경사'의 전남대 교수 전인삼이 무대에 오른다.

이외 김영옥 무용수 무용단 단장이 임춘초교를, 박아림 대전살풀이춤 이수자가 초립동을 선보인다.

선영숙 인간문화재는 가야금산조를 박시양 인간문화재는 장고, 유명숙 한진옥류살풀이춤 보존회 이사장은 한진옥류살풀이춤 무대에 올린다.

흥겨운 민요 무대도 마련돼 있다.

이재자 민요가수가 '배피어라', '신고산타령', '자진벚노래'를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노은정 한누리예술협동조합 대표는 변집 무대를 보여준다.

대구국악제 종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미애는 임이조류허튼춤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지난 1999년 광주에서 한국 최초로 광주전남 남도전통예술인추모제를 열었다. 국장 송홍목·박우진·임방울·김창조 등 국내 명인명무 117명 위패봉안과 더불어 싹김굿과 판소리, 구례향제출품류, 창작국악실내악, 사물놀이, 한국무용, 인문학 콘서트 '시와 노래가 춤을 만나 향기를 배접하다' 등을 연출기획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하다 봄'

오월정신 계승 주제 청년작가 특별전... 19일까지 예술이 백그라운드

오월정신 계승을 주제로 청년작가들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직접 광주의 오월을 겪지 않았지만 예술가들은 자신만의 조형 형식과 예술성으로 그날의 잠상을 기억하고 미래의 민주주의를 바라본다.

오는 19일까지 광주 동구 대인동 예술이 백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명백하다 봄'전.

'의심할 여지없이 아주 뚜렷하게 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전시의 명칭처럼 청년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결과물을 매개로 광주정신의 진실을 직시한다. 또한 계절의 '봄'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도 있어 80년의 봄과 2023년의 봄이 교묘하게 조응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듯 전시는 부제 '청년 예술가들의 민주정신 씨앗뿌리기'처럼 "글과 사진으로만 민주화운동을 배운 청년 세대가 시각을 통해 사건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참여 작가로는 강다감, 권여경, 김태경, 김나연, 김민서, 김예술, 나주영, 문승환, 서수진, 양해성, 이주유, 이준호, 정서연, 조자명, 최준하, 하정민이다. 이들의 작품을 관통하는 '명백하다 봄'은 모두 3가지 시선이 병치돼 있다. 먼저 과거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보는 직관, 현재에서 사건의 사실을 보는 통찰, 마지막으로 미래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영감이 그것이다.

김나연의 '그날의 전일빌딩'은 5·18 학생 당시의 상흔의 공간 전일빌딩245(현재 명칭)를 전면에 부각하고 있다. 콘크리트 벽면에 난 총탄 자국과 깨진 유리창의 모습은 당시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세력들을 향한 경고로 보인다. 진실은 아무리 묻어내도 은폐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명징하게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을 화면 속 거친 붓길



김나연 작 '그날의 전일빌딩'

과 우중충한 하늘이 보여주는 것 같다. 사실 5·18 당시 많은 청년들이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을 당했다. 이준호의 작품 '누가 범인일까?'는 무고한 청년과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명령을 수행했던 이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중에 한 명 있는 범인을 찾아보아라"는 말에서 당시 진압과 살인, 폭행을 수행했던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찾고야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 전시는 민족미술협회광주지회가 주최하며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가 후원한다.

한편 청년기획자인 권여경과 이준호는 "전시를 꾸려나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사회로 발을 닫기 전 5월 행사에 직접 참여해 경험해보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했다"며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오월 광주에서 청년작가로서 그날의 봄을 기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어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려인 정체성' 찾고 전통·관습 보존해야"

광주고려인마을, 박순철 전북대 명예교수 초청 인문강좌

광주고려인마을은 최근 고려인문화관에서 박순철(사진) 전북대명예교수를 초청, '고려인마을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주제로 인문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호남대학교인문도시사업단(책임연구원 최영화 교수)과 고려인마을, 광주 광산구가 '아시아의 기억을 건다'라는 주제로 마련했다.

박순철 교수는 고려인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1만 2000여점의 고려인관련 유물의 가치를 조명할 후 아카이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철 교수는 강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동포를 만나본 후 느낀 것 중 가장 큰 뜻



은 '고려인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었다"며 "고려인문화관이 고려인의 정체성을 찾아 주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 전통과 관습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해 '자연어 처리를 통한 무형문화 자료의 내용 연대를 추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장치 및 이를 위한 방법'이라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전산 아카이브 전문가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일상 포착 다양한 풍경, 간결한 언어로

영암 출신 박영자 시인, 디카 시집 '순간의 여백' 펴내

영암 출신 박영자 시인이 디카 시집 '순간의 여백' (시와문화)을 펴냈다.

시집에는 일상에서 포착한 다양한 풍경과 이를 간결한 언어로 풀어낸 시들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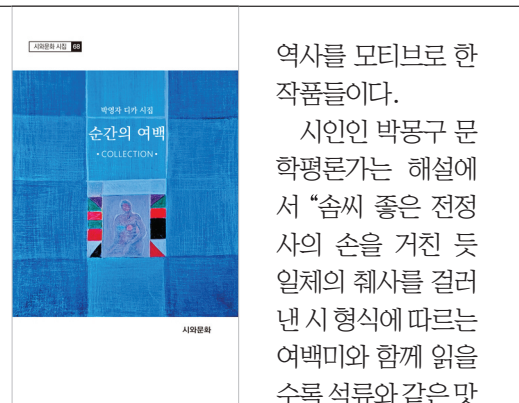
박영자 시인은 "이번 디카 시집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추억과 일상의 기록들과 더불어 1980년 5월을 함께 겪었던 우리 세대의 고뇌와 아픔을 많이 생각하면서 써내려 간 글들을 함께 모아 보았다"며 "무작정 스마트폰에 담아본 풍경은 사진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아름다웠고 글과 같이 어우러져 나름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4행에서 5행에 이르는 시들은 압축미와 리듬감이 있어 소리내 읽다 보면 짧은 노래를 부르는 느낌을 준다. 디카 시집의 특성에 맞게 순간을 포착한 풍경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꽃과 나무, 바다, 산, 호수 등의 사진은 보는 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처럼 편안하다.

"은무 견힌 산자락에 새 지저귀고/ 빗살무늬 파고드는 세량지 호숫가에/ 제 그림자에 취해 버린 진달래 혼불/ 푸른 밑둥들이 수련수련 깨어난다"

위 시 '세량지'는 화산 세량지의 봄을 노래한 작품이다. 수채화를 그린 듯한 사진과 풍경을 간결하게 묘사한 시어는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환기한다.

역사의 아픔을 노래한 작품들도 있다. '임실 호국원', '피아골의 그림자', '햇볕' 등의 시는



역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다. 시인인 박몽구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숨겨 좋은 전정사의 손을 거친 것 일체의 제사를 걸러낸 시 형식에 따르는 여백미와 함께 읽을 수록 석류와 같은 맛이 새록새록 배어나 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카메라 앵글에 담긴 풍경도 간결한 시행과 반류를 이루어 시적 의미를 깊고 풍부하게 직조하는 걸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인은 조선대 국문과와 광주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문학예술'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왔다. 전남여고 문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시집 '아름다운 인연', 수필집 '순백의 향기'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배우고, 즐기고, 행하는 문화예술'

광주예총 시민예술대학 수강생 모집... 100명 선착순

문학, 미술, 판소리, 음악... 광주예총(회장 임원식) 시민예술대학이 올해도 강좌를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31번째 맞는 시민예술대학은 그동안 다양한 강좌로 시민들과 예술인을 만났다.

올해 주제는 '배우고, 즐기고, 행하는 문화예술 대학'. 오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매주 목·금 오후 3시) 진행되는 이번 시민예술대학은 올해는 특히 전문 학장제로 운영되며, 교육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강연 장소는 서구청 들בל빌 2층과 광주예총 방울소리 공연장. 정혜경 시민예술대학 학장은 "그동안 시민예술

대학은 매년 약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며 "올해도 시민들이 선호할 만한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9개 강좌로 구성돼 있다. 첫 강좌는 이근배 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한글의 나라, 시의 겨레'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김석원 조선대신경외과 교수와 김포천 전 광주 MBC사장을 비롯해 이강숙 조선대경영학부 명예 교수, 윤익 미술문화기획자,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강연을 한다. 또한 이향아 시인, 김미옥 성악가, 마미숙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이수자 등이 강좌를 펼칠 예정이다.



김포천



이근배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은 "'올해 시민예술대학은 전문화장제 도입으로 여느 해보다 내실과 전문성을 기하고 각계 저명한 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했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예술가들은 누구나 참여해 생활 속 예술을 향유하고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장애인 창작 역량 증진 지원사업 단체 공모

장애인 창작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광주지역에 등록된 장애인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모두 4-5개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단체 대표자 또는 단체 구성원 중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희망 단체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

메일(gjcsupport@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관련 사업 공모를 수어통역 등이 포함된 영상으로 제작해 광주문화재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gjcforkr)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유형별 신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 지원을 사전예약제로 실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